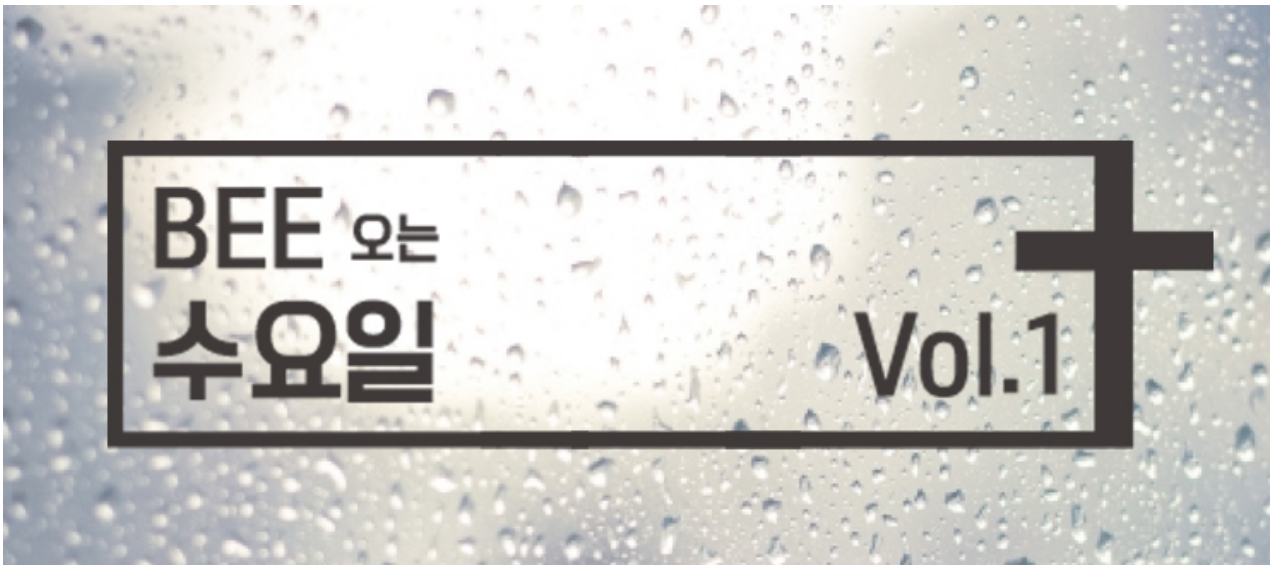




두번째 이야기

God's Humor



지금 섬기는 늘푸른 교회에서 제 별명은 '죄인 전교 1등'입니다.

27년째 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개근한 건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 전엔 예배만 빼고 다녔습니다. 주로 청년부 후배들 술 사주러 나갔습니다. "마가복음은 난 잘 모르겠고, 애들아, 인생은 이런거야"라며 '내가복음'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학 써클 선배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청년부원들을 불러내면, 선배들은 '으이구 최승호!' 하면서, 당신들의 아들딸을 위해 동네 마트에서 북어국 재료를 사다 놓으시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엔 죄인 전교 2등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주일 평균 참석 교우 수가 60명이 넘지 않는 가족같은 공동체입니다) 저 보다 한 살 어린 그도 당근 교회 대충 다녔습니다.

제가 소집하는 청년부 술자리 총무입니다. 제가 음주 연설을 늘어놓으면, "애들아 승호형 말 잘들어"라며 청년부 애들 술 맥이는 겁니다. 저는 현재 온누리교회 JDS 서빙고 저녁반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온누리교회 JDS 서빙고 저녁반 학생으로 출석중입니다. (Sorry, JDS ^^) 우리 둘은 올해 초부터 매일 다섯장씩 같은 구역 집사님들과 성경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회 예배 개근 중입니다. 녀석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교회 예배 개근중입니다. 둘이 교회에서 만나면 "간사님, 형제님" 하며 (우리 교회에선 완전 뜬금 없는) 허그를 해댑니다. 보다 못한 교회 후배가 한 마디 했습니다. **"God's Humor."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웃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년엔 죄인 전교 3등까지 데려와, 온누리 JDS를 아예 접수할까 생각중입니다.^^)

4남3녀 중 다섯째(3남)입니다.

온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평균 보다 조금 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친한 친구들의 아버님 중엔 환경 미화원이 한 분 계셨고, 시내버스 기사님이 한 분 계셨고, 밤무대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좌절한 확커’도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 제 선친께서 사업하시다 부도가 나, 도피중이셨습니다. 부잣집 윗동네 애들은 우릴 보고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구 못하는 동네 아이들이라 불렀습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초등학교 시절 학교 운동부에 자주 불려 다녔습니다. 축구대회가 있어 축구부에 들어갔다가 대회 나가기 직전 그만뒀습니다. 유니폼 살 돈이 없어섭니다. 핸드볼 대회를 앞두고 코치쌤의 호출을 받았지만 대회가 열릴 땐 응원석에 있었습니다. 집엔 여전히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배우도 배웠고 태권도도 배웠습니다. 물론 유니폼이나 도복을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존감 퀸이셨던 엄마 유전자를 많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언제나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겼습니다. 남들이 걱정하는 것 보다 내 처지에 더 낙천적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 나라 계신 올엄마 보고 싶네요;;;;) 중고교 시절엔 동네 어귀에 있는 하얀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학생들을 볼 수 있어섭니다. 해마다 문학의 밤 전야엔 어찌나 설레던지요, 이름도 모르는 그녀가 오기를 기도하며, 밤을 거의 샌 적도 있습니다. 대학 가서는 친구 교회로 옮겼습니다. 딱 거 없습니다. 더 예쁜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섭니다. 그땐 그랬단 겁니다. 작년 부터 교회 개근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말입니다. ^^ 후후.

첫 직장은 신문사였습니다.

당시엔 월급이 현대 삼성 다니는 친구들의 두배였습니다. 일도 다이나믹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을 땐, 꼬박 한달 동안 집에도 못가고 취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했을 때 끝까지 특별기로 날아가 보기도 했고, 북한 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했을 땐 종군기자라도 된 것 처럼 긴박하게 취재했던 기억도 새롭네요. 영화 말아톤의 실제 인물인 배형진씨를 세상에 처음 소개했던 일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유학 후 신문사로 복귀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엄마와 담임교사', 두 사람만 바뀌어도 세상을 더 멋지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육 개혁에 도전했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능력이 일천했기 때문이라 순순히 인정하고, 저널리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번째 직장은 대기업 회장실, 기조실 뭐 이런 데였습니다. 회장님 어드바이저 역할도 해보고, 기조실 중역놀이도 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을 배웠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났고, 25평 짜리 집이 32평 짜리로 커지는 것을 보며 꽤 쓸쓸하다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뱃살이 늘어났고, 눈빛이 썩해졌고, 마음이 멍들기 시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혼 충격으로 쓸쓸함과 허무함이 겹잡을 수 없이 커지던 12월 어느날, 더 다니다간 죽을 것 같아 백기를 내던진 겁니다.

작년 JDS는 제 인생의 다메섹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이 재해석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나간다 여겼던 시간은 사실은 죽기 직전까지 폭주했던 것임을, 제가 실패라 여겼던 시간은 오히려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형통의 터닝 포인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 가지 기쁨에 흠뻑 빠져 삽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개근하며 성경 통독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JDS 섬기며 눈물 흘리는 일입니다. 셋째는 BEE 오는 수요일 인터뷰하는 겁니다. BEE의 산증인 되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그 분들의 삶 속으로 떠나는 짧은 시간여행은 제게, ‘믿는다’는



동사의 뜻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는 또 다른 의미의 '성지 순례' 랍니다. 내가 살아온 '믿는다'와 그 분들이 살아내고 계신 '믿는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 앞에 매번 숙연해 지기 때문입니다. 깔깔 대며 웃을 때도 많습니다. 대부분 함께 인터뷰 하시는 한숙영 권사님과 사진 촬영을 맡으신 조정문 집사님 덕분에지만, 인터뷰를 마칠 때 마다 벅차오르는 충만감에, 가만 있다가도 저절로 찬양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좋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멈추게 해 주셔서. BEE를 만나게 해주셔서. 땡큐라는 그 흔한 말로 제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은, 그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어휘가 없는 저로서는, 또 다시 그 흔한 말로 끝인사 올립니다. Thank you, BEE & Thank You, Lord ! ^^

(글: 최승호, 편집: 최지영)

최승호는...

1969년 서울생. 미 하버드대 교육학 석사.

조선일보- CJ 그룹- 두산인프라코어 거침. 서울 연희동에서 독거하며 광야 중.

요즘 품고 있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21:15)

BEE 소식

- | | |
|--|--|
| <p>① 조문상 선교사님과 이성애 권사님께서 네 팔 다란에서 논술 세미나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p> | <p>③ 장안녀집사님은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 수술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회복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p> |
| <p>② 본부에서 섬기던 홍소피아간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3월 말부터 믿음 좋은 딸바보 권태욱간사와 샌드위치를 아주 맛나게 만드는 나용선간사가 섬기고 있습니다.</p> | <p>④ 4월23일 체육대회용 '라구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4월9일 토요일도 모임 후에 판매할 예정입니다.(15,000원) 티셔츠 디자인 인도 'BEE 오는 수요일' 대문 디자인 재능 기부 해주신 최지영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지영님께 다시한번 특별한 감사 드립니다.</p> |